

# SLR카메라, 일본 수입 100배 증가 반면 콤팩트카메라, 중국·대만 강세

작년 1월, 7월에 각각 SLR카메라, 콤팩트카메라의 수입선다변화가 해제됨에 따라 우려했던 대로 대일 무역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SLR은 일본에서 수입된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배 이상 늘었으며, 전체 수입 금액 가운데 70.1%나 차지해 높은 일본 의존도를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콤팩트카메라는 전체 수입액 중 6.6%를 차지해 우려했던 것만큼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지 않은 반면에 중국, 대만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정리/편집부

## 콤팩트카메라

중국, 대만 저가 제품에 밀려  
일 메이커, 투자 보류 시장 관망

콤팩트카메라는 수입선다변화가 해제되기 이전에 우려했던 것만큼 일본 수입업체들의 공세는 없었다.

당초 수입선다변화 해제를 앞두고 동원정밀(주)(펜탁스), (주)아남 인스트루먼트(니콘), SK상사(캐논), (주)우성포토교역(코니카), 정안물산(올림푸스), 한국후지필름(주)(후지필름) 등이 저마다 콤팩트카메라 시장에 뛰어들어 본

격적으로 일본 제품을 수입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카메라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테크윈(주)(구. 삼성항공산업(주))의 국내 점유율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적인 전망이 나왔으나 시장은 잠잠하다.

일부 일본 카메라 수입업체들은 당초 '늦어도 8월'이었던 신제품 출시 계획을 늦추고 하반기에 소량의 모델을 내놓았으며, 모 업체는 2000년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콤팩트카메라 영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업체들이 신제품 유입 등의 투자를 보류하고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 상반기에는 작년에 들여와서 판매하지 못한 제품을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

<표 1> 콤팩트 카메라 수입 현황(국가별, 1993~1999)

<품목 : HS/9006539090>

단위 : 천달러, 증가율, 구성비:%

연도	총액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미국		기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3	16,982	-	428	-	3,450	-	2,186	-	8,017	-	317	-	2,584	-
1994	15,688	-7.6	1,504	251.7	1,345	-61.0	2,540	16.2	6,643	-17.1	835	163.2	2,821	9.2
1995	24,498	56.2	9,426	526.7	1,839	36.8	1,507	-40.7	7,014	5.6	234	-71.9	4,478	58.7
1996	41,494	69.4	25,188	167.2	4,424	140.6	826	-45.2	3,927	-44.0	64	-72.5	7,065	57.8
1997	33,913	-18.3	21,881	-13.1	2,561	-42.1	560	-32.2	5,435	38.4	882	1,278	2,594	-63.3
1998	8,473	-75.0	7,286	-66.7	276	-89.2	4	-99.3	155	-97.1	1	-99.8	751	-71
1999	22,782	168.9	17,723	143.2	1,508	445.5	130	3,150	521	235.3	109	10,800	2,791	272

〈표 2〉 콤팩트 카메라 수입 현황(1999년)

단위 : 천달러, 증가율, 구성비-%

국가명	금액(증가율%)	구성비(%)
중국	17,723(143.2)	77.8%
일본	1,508(445.5)	6.6%
독일	1,113(2488)	4.9%
대만	521(235.3)	2.3%
말레이시아	488(419.3)	2.2%
캐나다	326(32600)	1.4%
기타	1,103(78.5)	4.8%
합계	22,782(168.9)	100%

다. 아직까지는 어느 업체도 과감히 시장 확대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삼성테크윈(주)만 그나마 지속적인 홍보 전략을 펼치고 있어, 일단 매출 신장과는 별개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고 보인다.

표 1에서 보듯이 1999년 한해 동안 일본에서 수입된 콤팩트 카메라는 작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150만달러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1년 전체 수입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6%에 그쳤다. 또한 달별 수입액도 7월 한달 동안의 20만 달러 수준에서 별 변동이 없다. 여기에는 작년 하반기 시작된 엔고 영향으로 수입이 주춤했다는 점도 한몫했다.

이에 비해서 중국에서 들여온 제품은 전체의

수입액의 77.8%를 차지하는 1,772만 달러에 달했으며, 중국 수입 비중이 이렇게 높은 것은 삼성테크윈(주)이 중국 현지 공장에서 조립 생산해 들여오는 제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예상보다 일본 콤팩트카메라 수입이 저조한 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행처럼 폭증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밀려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작년부터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디지털 카메라는 업체 간의 치열한 홍보전으로 고객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또 원산지 표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캐논, 니콘, 올림푸스, 펜탁스 등 일본 유수의 카메라 업체들은 이미 생산거점을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타이완 같은 동남아시아 등지로 이전해 1998년 기준으로 스틸카메라의 해외생산 수량은 80%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선 다변화 해제 이전부터 동남아에 있는 일본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중저가 카메라들이 국내에 들어왔는데, 수입선다변화가 해제된 이후에도 일본에서 직접 제작한 고급기종보다 동남아 등지에서 조립한 중저가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한 메이커의 경우 현재 취급 제품 10기종 가운데 2기종만이 'Made in Japan'이고, 나머지는 동남아에서 조립한 제품이다. 이런

〈표 3〉 주요 국가 월별 수입 현황(콤팩트카메라, 1999년)

단위 : 천달러, ( )안 전년 동기비-%

국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점유율
중국	828 (-6.5)	1,339 (154.4)	788 (43.7)	1,523 (371.2)	1,352 (396.4)	2,058 (639.6)	1,024 (106.2)	1,913 (217.4)	2,424 (246.0)	1,116 (145.8)	1,553 (19.0)	1,806 (102.1)	17,723 (143.2)	77.8%
일본	2 (-)	0 (-)	0 (-)	44 (-)	0 (-)	0 (-)	200 (-)	152 (-)	375 (10.96234)	320 (209.8)	200 (-)	214 (108.7)	1,508 (445.5)	6.6%
독일	0 (-)	21 (-)	44 (-)	0 (-)	1,082 (*)	0 (-)	0 (-)	0 (-)	0 (-)	10 (-)	0 (-)	0 (-)	1,113 (2,499.9)	4.8%
대만	9 (-)	28 (-)	44 (-)	95 (-)	147 (-)	42 (-)	111 (261.3)	0 (-)	44 (-)	0 (-)	0 (-)	0 (-)	521 (235.3)	2.3%
기타	170	218	980	250	143	477	158	9	205	169	86	117	1,917	8.5%
총계	1,009 (13.7)	1,606 (157.5)	930 (65.7)	1,741 (381.8)	2,724 (896.1)	2,577 (600.8)	4,493 (112.4)	2,074 (244.1)	3,038 (331.4)	1,615 (124.1)	1,839 (35.0)	2,137 (63.6)	22,782 (168.9)	100%

## '올바른 소비자 의식, 유통구조 바로잡자' 중국 시판 제품 싼 값 수입, 수입업체 피해 커 울상

직접 중국을 오가며 물건을 들여와 판매하는 수입상(일명 '보따리상' 보다는 발전된 형태)들이 늘면서 중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일본 메이커의 카메라를 싼 값에 들여와 전자상가 등에서 판매하는 바람에, 시장 유통구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경우 정식으로 일본 업체와 에이전트를 맺은 업체들은 가격 경쟁에서 상대가 안된다. 하지만 이 수입상들이 정식으로 관세를 내고 들어오는 바람에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어 한숨만 쉬고 있다. 수입 경로는 다르지만 결국 동남아에서 제조된 같은 메이커의 제품인데다, 가격은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일본 올림푸스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고 국내에 콤팩트카메라를 보급하고 있는 정안물산의 임두순 대리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인식'을 강조한다.

"당장은 싼 가격이 매력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식 수입업체를 통해 들어오지 않은 이러한 제품은 A/S 등 사후대책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손해입니다."

결국 이런 제품들은 단발로 '팔기만 하면 끝이다'는 풍조를 만연시키며 카메라 시장의 가격 질서를 흔들고 있다. 현 시점에서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안타깝게도 소비자들의 이성적인 선택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이다.

경향은 다른 수입 메이커들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일본 메이커라지만 결국 소비자들이 접하는 제품은 수입선다변화 해제 전이나 이후나 마찬가지로 'Made in Taiwan', 'Made in China'가 붙어 있어 별 매력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메이커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일단 시장을 관망하면서 장기적으로 시장을 점쳐 보고 있다.

여기에 일본 메이커가 아닌 중국, 대만, 홍콩 등지에서 유입된 물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한 몫한다. 동남아에서 수입되는 이러한 저가형 제품들은 4,5만원대의 싼 가격을 무기로 대형 할인점, 인터넷 쇼핑몰 등에 포진해서 사은품 등의 용도로 대량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동남아 제품들은 수량은 많지만 아직까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 SLR카메라

## 수입 증가 8배 달해, 일본 의존도 극심

콤팩트카메라에 비해서 SLR카메라는 수입선 다변화가 해제된 후 1년 동안 높은 수입증가를 보이고 있다. 1998년 90만 달러에 비해서 1999년은 거의 7.6배가 증가한 776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543만 달러로 70.1%이다.

전년에 비해 100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이외 대만,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에서 들어온 금액은 모두 195만 달러로 전체의 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8년에 전혀 수입 실적이 없던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수입이 급증한 한해였다.

SLR카메라는 아남인스트루먼트(주)에서 일본 니콘의 한 기종을 부품 상태로 들여와 조립 판매한 제품 이외에는 생산라인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그나마 올 초 아남인스트루먼트(주)에서 생산을 포기하고 수입판매만 하기로 한 바 있다.

〈표 4〉 SLR 카메라 수입 현황(국가별 1993~1999)

〈품목 : HS/9006519000〉

연도	총액		일본		중국		대만		미국		홍콩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3	4,037	54.3	2,083	127.5	366	-35.1	12	-55.6	2	-81.9	1,453	32.3
1994	4,840	19.9	3,861	85.4	193	-47.4	17	42.1	7	275.4	644	-55.7
1995	3,285	-32.1	2,412	-37.5	557	189.2	47	168.2	6	-13.0	126	-80.3
1996	2,077	-36.8	334	-86.2	631	13.3	0	-	72	1,200.0	296	133.8
1997	2,996	44.3	1,463	338.1	786	24.5	218	-	45	-37.5	95	-67.9
1998	902	-69.9	50	-96.6	389	-50.5	300	37.5	49	9.2	1	-99.0
1999	7,757	760.0	5,435	*	634	62.8	668	122.6	101	106.8	10	950.1

따라서 현재 국내 SLR카메라 시장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올 초 국내 카메라 시장에 새로 뛰어들어 일본 캐논 카메라를 보급하고 있는 LG상사가 Auto Focus(3~4배 줌)를 중심으로 SLR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내다 보는 등 수입업체들의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일 수입 적자폭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SLR카메라 국가별 수입 현황(1999년)

단위 : 천달러, 증가율, 구성비-%

국가명	금액(증가율%)	구성비(%)
일본	5,435(108.7)	70.1%
대만	668(122.6)	8.6%
중국	634(62.8)	8.6%
싱가폴	322(32,200)	4.2%
필리핀	233(32,600)	3.0%
태국	102(10,200)	1.3%
기타	363(78.5)	4.7%
합계	7,757(760.0)	100%

〈표 6〉 주요 국가 달별 수입 현황(1999년, SLR카메라)

단위 : 천달러, ( ) 안 전년 동기비-%

국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점유율
일본	552 (-)	194 (954.6)	110 (553.2)	385 (-)	263 (-)	469 (6,536)	765 (10,220)	579 (-)	380 (-)	626 (-)	490 (-)	651 (-)	5,435 (10,769)	70.1%
대만	0 (-)	51 (237.7)	69 (-)	79 (-44.4)	114 (133.8)	0 (-)	193 (-)	76 (-)	76 (10,962)	0 (209.8)	11 (-)	0 (108.7)	668 (122.6)	8.6%
중국	14 (69.7)	24 (516.4)	36 (82.8)	36 (-40.3)	45 (-71.4)	74 (85.7)	111 (398.0)	25 (-13.9)	58 (198.7)	61 (216.2)	48 (-)	103 (715.6)	634 (62.8)	8.1%
기타	92	3	20	36	145	122	14	102	115	50	233	87	1,020	13.2%
총계	628 (1,066)	272 (275.2)	235 (400.7)	536 (164.3)	567 (136.4)	665 (536.0)	1,083 (3,381)	782 (629)	629 (3,161)	737 (3,737)	782 (2,071)	841 (1,761)	7,757 (760)	100%